

## Avanci, 사물인터넷(IoT) 무선연결 가속화할 원스톱 라이선싱 플랫폼 출시

- *에릭슨, 퀄컴, 인터디지털, KPN 및 ZTE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 기업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커넥티드 제품에 대한 보다 간편한 라이선싱 방식을 찾는 IoT 제조사들의 요청에 투명한 고정 요금율 운용으로 부응*

2016년 9월 14일 - 아반치(Avanci)는 사물인터넷(IoT) 무선기술 특허 라이선싱을 위한 최초의 플랫폼을 선보였다. Avanci는 플랫폼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표준필수특허(SEP)를 취합, 자사 제품에 연결성을 부여하려는 IoT 기기 제조사들이 단 하나의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수십억 대의 커넥티드 기기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IoT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시장을 창조하고 있는 가운데, IoT 시장에 진출하는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에 연결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떠한 특허 라이선싱이 필요하고 무엇이 적정 가격인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Avanci는 여러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에 의거해 이 과정을 하나의 라이선싱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고정 요금율을 토대로 관련 기술이 각 기기에 제공하는 가치에 따라 책정되는 요금을 예상할 수 있다.

카심 알파라히(Kasim Alfalahi) Avanci 창립자 겸 CEO는 "Avanci의 간소화된 라이선싱 솔루션은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IoT 기기 제조사들과 특허소유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을 플랫폼에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IoT 제조사들은 Avanci를 통해 수많은 기술 보유 업체들과의 협상에 소요될

많은 시간과 자원 대신 한 곳에서, 단 하나의 라이선스로 최첨단 무선 기술을 활용하면서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 오픈 플랫폼은 특허권 보호 절차와 함께 새롭게 연결된 세상을 구현할 수많은 IoT 기기들의 시장 출시과정을 촉진시킬 전망으로, 신규 제품에 연결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 및 자사가 보유한 무선 표준특허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들 모두 참여 가능하다.

Avanci의 초기 라이선싱 플랫폼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s)와 스마트미터(smart meter)를 위한 2G, 3G, 4G 그리고 셀룰러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출발해 점차 다른 IoT 제품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IoT 업계를 위한 Avanci 라이선스는 셀룰러 표준특허기술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여기에는 에릭슨, 퀄컴, 인터디지털, KPN 및 ZTE 등 혁신 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비롯해 향후 새롭게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특허들도 포함된다.

구스타브 브리σμα르크(Gustav Brismark) 에릭슨 최고지식재산책임자(CIPO)는 "최근 연결성 부문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 무선통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에 따라 기업들은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더욱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Avanci의 라이선싱 플랫폼은 IoT 기기 제조사들이 핵심 무선통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IoT 분야의 개발 및 LTE 활용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 로저스(Alex Rogers)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선싱 사장은 "퀄컴의 무선통신 기술은 모바일을 넘어 IoT 분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퀄컴의 기술 솔루션은 가정과 자동차, 도시 및 웨어러블 등 다양한 시장에서 IoT 공급자들이 선보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며 "Avanci를 통해 퀄컴의 셀룰러 특허 기술을 공유, 해당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표준특허기술 라이선싱 과정을 간소화하고, IoT 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About Avanci**

Avanci has a vision that sharing technology, on a broad scale for the Internet of Things industry, can be simpler. Our connected world is evolving quickly – and we want to help it all happen

even faster. Our one-stop solution keeps the success of the ecosystem squarely in sight, bringing convenience and predictability to the technology licensing process. In our new marketplace, those with essential patents can share their innovations, and companies creating connected products for the Internet of Things can access the patented wireless technology they need to be successful – in one place, with one agreement and for one fair, flat rate. Founded in 2016, Avanci is headquartered in Dallas. For more information about Avanci, please visit <http://www.avanci.com>.

**Additional Supporting Statement:**

스펜서 쉐ن(Spencer SHEN) ZTE 최고지식재산책임자(CIPO)는 “ 무선 통신 기술이 기존 통신업계를 넘어선 영역으로 진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쁘다” 며. “ZTE 는 10 년 이상 자사 기술을 통해 업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 관련 생태계에서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새롭게 연결될 IoT 기기의 혁신 선순환과 미래 기술 투자에 있다고 보는 만큼 “연결성을 라이선싱하기 위한 Avanci 고유의 접근 방식이 향후 IoT 업계를 선도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Avanci Contact:**

Sophie Skaggs  
Director of Marketing & Communications  
214-765-9515  
[media@avanci.com](mailto:media@avanci.com)